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CHINA

중국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17~08/23

1. 중국발 유럽행 화물 운송 경로 다변화
2. 글로벌 특송업체의 중국 물류 네트워크 확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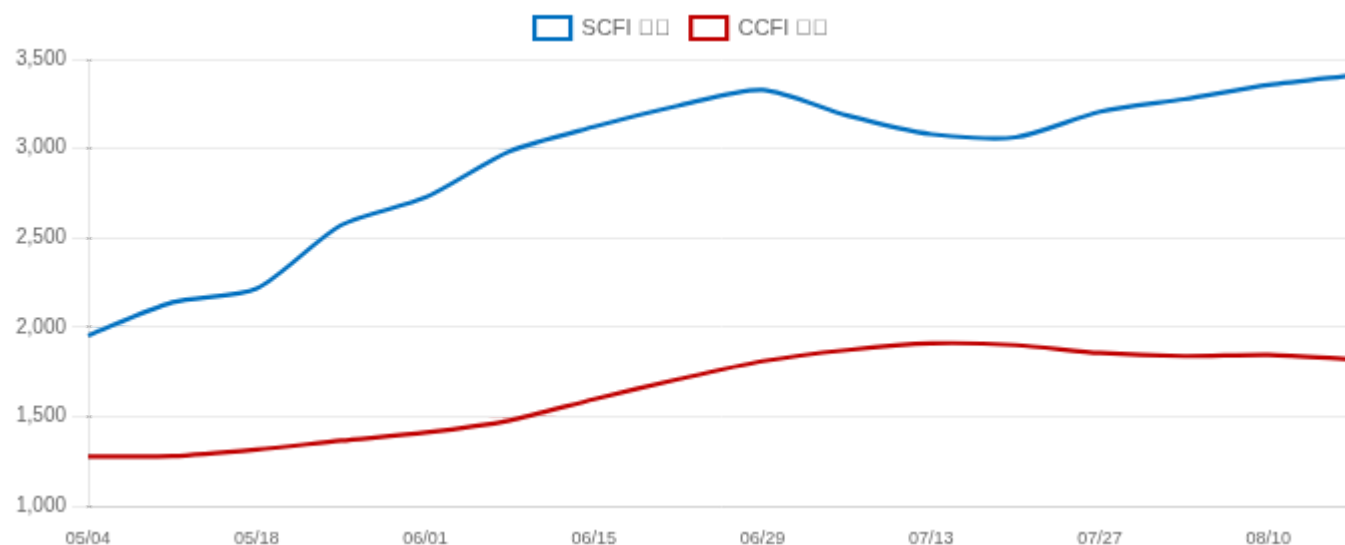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국 권역 물류 핵심 흐름은 중국발 유럽행 화물 운송 경로의 다변화와 글로벌 특송업체의 중국 네트워크 확장임.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 운항이 증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한 육로 운송 수요가 늘면서 해상 운송 중심에서 벗어나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음.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아시아 역내 무역 성장과 중국의 제조·수출 허브 지위 유지에 대응해 항공 화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물류 허브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됨. 운송 경로 다변화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 변화라는 외부 변수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특송업체의 투자 확대는 중국 시장의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함. 향후 중국발 화물의 운송 효율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아시아-유럽 간 무역 흐름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종합	3,409.63 pt	08/17	+1.6%	+11.3%
CCFI 종합	1,821.65 pt	08/17	-1.4%	-4.2%
KCCI 중국	56 \$/FEU	08/17	0.0%	-1.8%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CCFI · KCCI) · 기준 08/17

중국발 유럽행 화물 운송 경로 다변화

중국발 유럽행 화물 운송이 기존 해상 운송 중심에서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 운항이 증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육로 운송 수요가 늘면서 중국발 화물의 경로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음.

중국발 유럽행 화물의 북극 항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26년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운항은 25척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15척, 2024년 11척 대비 큰 폭의 성장임. 특히 한국 선사인 팬스타shipping이 최초로 북극항로에 진입하는 등 상업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됨. 이러한 증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빙 면적 감소로 하절기 항행 가능 기간이 길어짐에 기인함.

동시에 중국 화주들은 해상 운송의 대안으로 유라시아 육로 운송에 주목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국영철도 KTZ에 따르면 중국발 화주들이 해상 운송보다 신뢰성과 운송 기간 예측 가능성이 높은 육로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22년 이후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철도 운송량이 급증하고 있음. 올해 1분기에만 약 173대의 컨테이너 열차가 이 회랑을 통과했으며, KTZ는 연말까지 600대로 확대할 계획임.

이러한 운송 경로 다변화는 중국발 화물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최근 수에즈 운하와 홍해 등 기존 해상 경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주와 선사들이 대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북극 항로는 운항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육로 운송은 해상 운송보다 안정적인 운송 일정을 제공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북극 항로는 혹독한 기상 조건과 제한된 항행 기간, 선박선 지원 비용 등의 한계가 있으며, 육로 운송은 인프라 확장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 카자흐스탄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철도망을 현대화하고 올해만 900km의 신규 철도를 건설하고 있음.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완료되면 운송 용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운항: 2024년 11척 → 2025년 15척 → 2026년 25척 이상으로 급증
- 한국 선사 최초 북극항로 진입: 팬스타shipping 2,786TEU급 선박 취항 예정
- 카자흐스탄 KTZ, 중국-유럽 화물 증가 대응 위해 올해 900km 신규 철도 건설
- 트랜스카스피안 노선 컨테이너 열차: 2026년 1분기 173대 → 연말 600대 목표
- 카자흐스탄 철도 인프라 투자: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처리 능력 5,5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확대

전망

중국발 유럽행 화물의 경로 다변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극 항로는 하절기 중심의 보조 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운항 횟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라시아 철도는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운송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기술 발전,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여부에 따라 운송 경로 다변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시사점

화주 — 운송 경로 다변화로 리드타임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화물 특성과 긴급성에 따라 경로를 전략적으로 혼용할 필요가 있음.

포워더 —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를 포함한 복합 운송 상품 개발과 파트너십 구축이 시장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항만·선사 — 북극 항로 진입을 위한 내빙 선박과 쇄빙 지원 역량 확보가 필요하며, 육로 운송과의 연계를 위한 항만 인프라 투자도 고려해야 함.

참고자료: Linerlytica, 북극 항로 컨테이너선 25척 운항...한국 선사 첫 합류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국영철도, 중국~유럽 화물 급증 대응...연내 노선 900km 신설 (검색일: 2026-08-23)

글로벌 특송업체의 중국 물류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특송업체들이 중국발 항공 화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역내 무역 성장과 중국의 제조·수출 허브 지위 유지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됨.

FedEx는 광저우~시드니 직항 화물편을 신설하고, DHL은 상하이~브뤼셀 노선 증편 및 선전 허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억7천700만유로를 투자하는 등 중국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음.

FedEx의 광저우~시드니 신규 노선은 주 5회 운항되며,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호주로 향하는 인바운드 화물의 운송 시간을 최대 하루 단축시킴. DHL의 선전 허브는 처리 능력을 하루 약 900톤으로 3배 확대하여 중국 남부 제조·수출 지역의 국경 간 이커머스 및 시간 민감형 특송 수요에 대응함.

이러한 확장의 배경에는 아시아 역내 무역의 높은 성장세와 중국의 공급망 중심지 역할 유지가 있음. FedEx는 2025년 아시아 역내 무역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DHL은 공급망 다변화 흐름에도 중국이 제조·소싱·혁신·소비의 중요 허브로 남아 있다고 강조함. 동시에 DHL의 상하이~브뤼셀 노선에 방콕 경유를 포함한 것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이 같은 네트워크 확장은 중국발 화물의 운송 시간 단축과 용량 증대를 통해 화주들의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특송 업체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고부가가치·시간 민감형 화물 운송 역량이 시장 점유율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FedEx, 광저우~시드니 직항 화물편 신설: 주 5회, 보잉 777 화물기 투입,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호주까지 최소 2일 내 배송 가능
- FedEx, 2025년 아시아 역내 무역 매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 기록
- DHL, 상하이~브뤼셀 화물기 증편: B767 기종, 50톤 적재 능력, 방콕·바레인 경유
- DHL,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1억7천700만유로 투자: 처리 능력 하루 약 900톤으로 3배 확대, 중국 본토 단일 투자 최대
- DHL, 중량물 특송(헤비웨이트 익스프레스) 수요 증가 대응: 기술·산업 제조·반도체·헬스케어·데이터센터·신에너지 분야 수요 확대

전망

글로벌 특송업체의 중국 물류 네트워크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며, 중국발 화물의 운송 시간 단축과 용량 증대를 통해 아시아 역내 및 중국~유럽 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과 결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계하는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화주 — 중국발 화물의 운송 시간 단축과 직항 노선 확대로 재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효율성 향상이 가능해짐.

포워더 — 특송업체의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운임과 스케줄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함.

항만·공항 — 선전 바오안 공항과 광저우 허브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처리 능력 확보와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